

CB 손해보고 주식 전환 대기매물에 주가 직격탄

>> 1면 '라임 투자 '데스노트'...'서 계속

두 기업 역시 손해를 감수하고 주
으로 전환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라임운용 사태에
휩싸였던 이유로 '좀비기업'으로 낙인
찍혀 투자 활로를 막고 있어서다. 기업
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선의의 피해도 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들 기
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비율은 1~2%에
불과할 정도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면서 "라임사태와 관계없
이 기업을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흔히 CB, BW는 유동자금이 없
는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끌어다 쓰는
전략인데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풋
옵션(전환사채를 되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요구받으면 투자 여력
이 사라진다. 또 CB, BW 전환에 따른
오버행(Overhang·대량 대기매물) 이
슈도 주가 상승을 막고 있다"고 말했
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산재노동자 직장 복귀하면 사업주에 월 최대 80만원

고용노동부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장애 정도에 따라 1년까지 지원금



근로복지공단

올해부터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
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
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까지 인상된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
라 1~3급의 경우 월 80만원, 4~9급은
월 60만원, 10~12급은 월 45만원을 최
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
정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지난
1일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 부담 최소
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이후 지원 수준이 현재까
지 동일해 사업주 혜택이 낮다는 지적
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지원 제도와의 형

평성을 고려해 장애 4~9급 산재 노동
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 금액을 현실
화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지난해 1500여
명을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
억 원이 지원됐다.
이재갑 장관은 "앞으로 직업재활급
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
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탈 서비스로
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hys@

역대 최고 R&D 예산, 세부 추진계획 공개 (연구·개발)

과기정통부, R&D 부처합동 설명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역
대 최고치로 확정된 정부연구개발(R&D)
예산 24조2000억원에 대해 주요 부
처의 연구개발 사업 주요 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을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안
내하기 위해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6일부터 22일
까지 2개 권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중
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R&D) 사업
을 수행하는 10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
으로 개최한다. 수도권은 6일에서 8일
까지 서울 송실대학교 환경직기념관
에서 6일에서 8일까지 개최되며, 중부권
은 20일에서 22일까지 대전 국립중앙
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진행한다.
권역별로 설명회 첫 날은 과기정통
부 및 교육부에서 연구개발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발표하며, 둘째 날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

건복지부, 셋째 날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환경
부의 순서로 발표가 이루어진다.
또 올해 정부 R&D 예산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 후속계
획 및 정부 지원정책, 정부 R&D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 주요 핵심정책에 대
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에 따라 합동설명회 첫날인 6일
에는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이 직접 참석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 확대의 의미를 참석자들에게 전
달하고, 동료 연구자로서 참석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
인할 수 있고,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도 제공된다.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행사
장에 별도의 상담 부스를 마련해 연구
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
정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SKC, 동박 제조업체 KCFT 1.2조에 인수

“배터리 핵심소재 글로벌 공략”

‘동박’ 생산량 現 4배 이상 확대
KCFT, 글로벌 진출 방안 검토
SKC 생산시설과 시너지 기대

SKC가 동박 제조업체인 KCFT의
인수절차를 마무리한다.

SKC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
인 동박 제조업체 KCFT가 SKC의 투
자사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6일 밝혔
다. 이날 SKC는 종속회사인 SKCFT
홀딩스가 전지용 동박 및 FCCL 분야
의 제조·판매 업체 KCF테크놀로지
의 주식 1913만9160주를 1조1900억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취득후 SK
CFT홀딩스의 KCF테크놀로지 지분
율은 100%다.

SKC는 KCFT와 함께 모빌리티 사
업을 확대하고 다편체인지를 가속화한다.
SKC는 7일 KCFT 주식을 인수할
고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에 따라 KCFT는 SKC의 100% 투자사
가 된다. 지난해 6월 13일 KCFT 인
수를 공식 발표한 SKC는 국내·외 기업
결합신고 등 인수절차를 진행해왔다.

동박은 구리를 고도의 공정 기술로
얇게 만든 막으로 2차 전지 음극재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얇으면 얇을수록
많은 음극 활물질을 담을 수 있어 배터
리 고용량화와 경량화에 유리하다.



전북 정읍시에 있는 KCFT 공장 전경.

/SKC

SKC는 KCFT가 세계 최고의 기술
력과 생산성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해 10월 독자 기술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4μm(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초극박
동박을 1.4m 광폭으로 세계 최장인 30
km 길이의 롤로 양산화하는 압도적인 기
술력을 선보였다. SKC는 KCFT의 기
술력에 SKC의 40년 필름 기술 노하우
를 더해 더 얇고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에 발
맞춰 생산능력도 확대한다. 전기차 등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동박 공급
량은 수요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KCF
T는 2025년까지 생산능력을 현재 3만
톤의 4배 이상으로 늘려나간다는 목표
를 세웠다. 지난 10월에는 전라북도 정
읍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내년 상반기

까지 정읍공장에 생산능력 1만톤 가
랑의 5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향후 KCFT는 글로벌로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터리 고객사가 있
는 미국, 유럽, 중국 등에 진출하면 고
객사의 요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에는 SKC 생산
시설의 여유부지가 있어 진출할 경우 거
점 마련 속도 등 여러 면에서 시너지 효
과가 크다.

SKC 관계자는 “그동안 모빌리티,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을 중심
으로 다편체인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KCFT와 함께 모빌리티 사업을 확대
하고 국내 소재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구성원 모두의 행복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중동발 리스크에 코스피 ‘출렁’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1.39포인트(0.98%)
내린 2,155.07로 거래를 마감한 6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
히 움직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5.0원 오른
1,172.1원에 거래 마감.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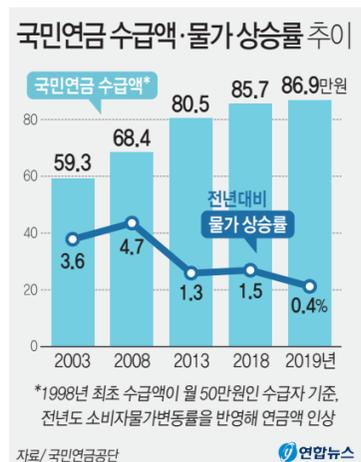
국민연금 월 수령액 10년새 1.2배 증가... “소비자 물가 반영”

국민연금공단 연금 실질 가치 보장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년 사이 1.2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연금공단의 수급자 연금액 산출 방식
때문이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매월 80만5340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던
사람은 2019년 12월 다달이 95만760원
을 수령했다. 1.18배 가량 오른 수치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와 적정급
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
을 인상해서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이런 연금계산 방식으로 인해 연금수
급액은 연도별로 해마다 불어났다.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수급
자의 경우 2003년 59만2560원, 2008년



68만4220원, 2013년 80만5450원, 2018
년 85만6610원, 2019년 86만9459원 등
으로 증가했다.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산출한 결과이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
3%, 2015년 0.7%, 2016년 1.0%, 2017
년 1.9%, 2018년 1.5%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역시 2019년 소비자물가변
동률(0.4%)을 반영해 0.4% 인상해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기준
월 52만50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인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이달
25일부터 2100원(52만5018원 × 0.
4%) 올라 52만7118원이 된다.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
려해 연금액을 인상해주는 것은 민간
연금 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
만의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이세경 기자 seilee@